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시방세계
十方世界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봉선사 일주문 상량식 현장

일주문에 '福藏'이 모셔진 뜻은?

"오늘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하면 떠오르는 4무(四無=일주문 · 암자 · 입장료(문화재관람료) · 큰 법당(대웅전) 한자)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봉선사에도 이제 일주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11월 5일 새로 건립되는 봉선사 일주문 상량식에서 주지 철안 스님의 감격스런 한마디였다.

청량한 가을하늘 고운 단풍이 화려한 광릉 봉선사에서는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 주지 철안 스님을 비롯 조계종 25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 200여명이 모여 일주문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상량식이 시작되자 월운 스님이 직접 작성한 상량문을 능엄학림 중강 정원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렸다.

지난날 예종 원년(1469)에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절을 창건하니
칸수로 따져 89칸이었네.
임진 병자 두 난리에 모두가 불탔는데
낭혜와 계민 두 스님의 주선으로 복원한 이래,
사격은 교종본산에 이르렀고
(중략)
꼭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일주문이 없이
마실 집과 맞닿아 있으니
마치 즐비한 고궁이나 재실 같아서
찾아오는 이들이 신심내기에 부족했네(후략)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맨 오른쪽)과 주지 철안 스님(왼쪽 끝)등이 새 일주문 천정복장에 들어갈 청동수장고의 덮개를 봉인하고 있다.

천정복장에 올릴 청동수장고는 불교식 '타임캡슐'. 오른쪽은 수장고 봉안물 중 하나인 현대불교신문 CD.

월운 스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상량문 봉독을 마치자 정인 스님의 신중작법이 이어졌다. 정인 스님의 염불소리에 맞춰 주지 철안 스님과 산중의 어른 스님들은 곧 올라갈 상량보의 파여진 홈에 상량문과 향을 넣고 봉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후대에 이 문을 중수하는 이들이 봉함을 열면 일주문의 내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상량식에서는 상량문 외에 다른 하나가 더 추가됐다. 상량보 위에 '천정복장(天井福藏)'이 올라간 것이다. 보통 불상을 봉안 때 '복장(腹藏)'을 넣는 의식은 흔하지만 건축물에 '복장(福藏)'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봉선사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가로, 세로 너비가 70cm인 초대형 청동 수장고(收藏庫)를 마련했다. 수장고 제작은 사리함을 전문으로 만들어온 금속공예가 이종길 씨가 맡았다.

철안 스님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고에 30여 가지 복장물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었다. 먼저 밀운 스님이 평소에 모시던 종유석 부처님이 들어갔다. 다음으로 밀운 스님이 대종사 법계 품수 때 받은 불자(拂子), 당시 입었던 가사 장삼, 목발우 등 불교용품 일습이 놓였다. 불교관계 논문 40여권, 각종 경전, 사경들도 포함됐다. 이밖에 고려대장경 CD, 사리탑, 월남침향, 백두산 천지의 돌, 봉선사본말사지(1950刊), 금강저, 동국역경원 불교성전, 현대불교신문 창간호부터 최근 10년 동안의 PDF파일이 담긴 CD, 불교신문 창간호 동판, 도목수 김배능 거사의 대패 등이 함께 봉안 됐다. 마지막으로 철안 스님이 소장하던 티베트 구게왕국 출토 '티베트장경'이 들어갈 무렵 밀운 스님은 붉은 팥 한 줌을 들어 복장물을 넣는 대중들을 향해 뿌렸다. 액막이였다. 그동안 신도들은 '화엄성중'을 목청껏 외치며 정근을 이어나갔다.

뚜껑이 닫히고 무명천으로 사방을 묶은 청동함은 곧 일주문 지붕 아래로 들려올라 갔다. 봉선사 일주문의 천정복장은 일종의 불교식 '타임캡슐'인 셈이다. 하지만 타임캡슐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단지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불교 복장은 불사의 영험을 비는 고차원적 의식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철안 스님은 "일주문에 복장(福藏)을 하게 된 것은 시대의 문화 · 사회 · 역사성이 더해지는 것이 좋겠다는 어른 스님의 뜻에 따라 산문을 들어서는 대중들이 머리위에 경전을 이는 것과 같은 공덕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우리시대 문화 · 정신 영구히 간직
청동 수장고에 30여종 넣어 봉안
가사 · 논문 · 현대불교 CD 등 담아

청동수장고 안에 넣은 복장물들. 우리시대 정신 · 문화를 상징하는 경전 · 가사 · 봉선사지 · 불자 · 각종 논문 등이다.

4개의 기둥이 한 줄로 서서 거대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봉선사의 일주문은 다포집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조선후기 양식의 '외 9포' 형식이다. 지난 8월부터 고건축장 김배능(중요무형문화재 제439호 기능보유자) 거사가 도목수를 맡아 일주문 불사를 진행해 왔다. 기둥에 쓰인 목재는 밀도가 높고 단단해 물에 가라앉는 아프리카산 특수목 '부빈가'를 사용했다. 그 밑으로 기둥을 받치는 화강암 하나의 무게는 무려 7톤이나 나간다. 김배능 거사는 "100~200년 후에도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찰장엄의 전형을 만든다는 원력을 세우고 불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주문 낙성은 오는 12월 15일 경.

처음 일주문 불사를 계획했던 前주지 일면 스님은 이날 사중소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일주문은 사찰로 들어서는 첫 문이며 한마음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주문의 모양이 기둥 한 줄로 서 있는 것은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곧바로 서있고 이 문에 들어서면 누구나 중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라며 일주문 건립 의의를 되새겼다.

회주 밀운 스님도 "산문을 연 969년 이래 10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문이 생겼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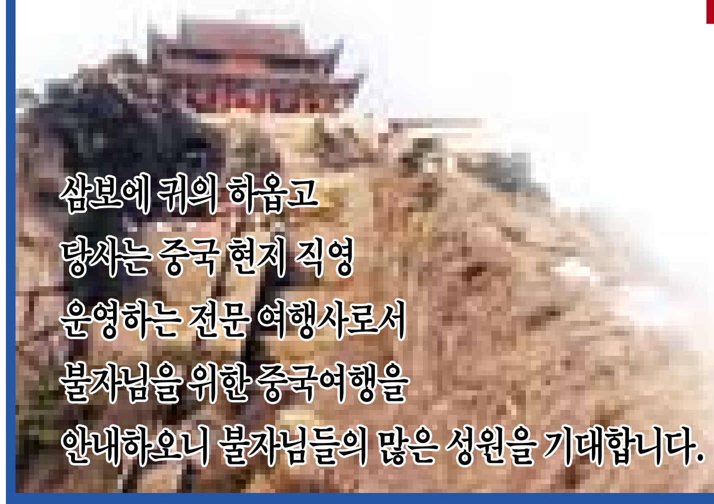
대중들이 반야심경 봉독이 시작하자 상량보가 기중기에 걸려 천천히 올라갔다. 상량보가 위치를 잡을 무렵 일제히 "불! 법! 승!" 삼보를 외치는 대중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꿍꽝' 거리며 상량보를 두들기는 목수들의 망치 소리가 광릉 숲을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날 상량식이 마무리 됐다.

봉선사=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11월 27일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출발

여행경비 : ₩850,000원 (10명이상 출발)



일 시	교통편	기 간	일 정
11월 27일	MU5042	07:00 09:05/11:30	인천 공항 모임 / 인천 출발 / 상해 도착 / 임시정부, 옥불사 참관 / 호텔휴식
11월 28일	고속페리	09:05/11:30	선편으로 보타산 이동 / 조음동, 보제사, 해제사, 남해 대불 참배 / 호텔 휴식
11월 29일	고속페리	13:30/16:00	선편으로 낙가산 이동, 낙가산 참배 / 선편으로 영파 이동 / 아육왕사, 천동사 순례 / 항주로 이동 / 호텔 휴식
11월 30일	전용버스		서호유람, 영은사, 육화탑 참배 / 상해로 이동 / 호텔 휴식
12월 1일	MU5041	09:15/11:55	항공편으로 상해 출발 / 인천 도착

※ 개인 경비 외에 모든 경비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화엄사, 현통사) ₩ 6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